



대한양계협회소식

2011년도 제 2차 이사회 개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본회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지하 1층에서 2011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본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양계 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활동 ▲AI 청정국 지위 회복과 양계산업 선진화 방안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 ▲분과위원회별 추진사업 ▲종계장 종합평가사업 ▲수입종계 및 종계검정사업 ▲계란유통구조개선 추진 ▲산란실용계 수급상황 및 대책방안 ▲닭검정 연구소 이전사업추진 사항보고▲ 본회 추진사업 대내외 홍보 및 월간양계 발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 실시 ▲질병가이드 제작 ▲2011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추진)가 있었으며 제규정 개정(안)(▲정관 및 대의원선출 규정 개정 ▲급여규정 일부 개정)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관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은 부결되었고 본회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은 상정 되었다.

이준동 회장은 그 동안의 18대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옥룡 전북도지회장, 손병원 이사등 18대 이사를 지난 분들께 공로패가 수여 되었다.

기자간담회 개최 2011년 협회 운영방안



제 19대 본회 회장으로 재선된 이준동 회장은 지난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이준동 회장은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협회 운영체계를 재정비 하고, 산란계·육계·종계 산업이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닌 한 가족 삼형제로서 최종산물과 판매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양계농장은 모두 같다”며 “산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기자간담회 개최…축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한 장으로...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지하 1층에서 지난 3월 30일 본회 이준동 회장은 축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 이준동 회장은 “금번 박람회에 다양한 분야의 참가업체와 축산업계 종사자 및 일반 관람객의 폭넓은 참관을 위해 사전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최대



한 동원할 것이며, 국내·외 바이어 및 축산농가, 관련 학계·업계 등의 많은 관계자들이 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화와 정보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박람회 행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6차 실무위원회 개최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2011 KISTOCK, 2011.9.21~24일, 대구EXCO) 제6차 실무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현재까지(4월 7일 기준) 41개 업체 172개 부스가 신청되었고, 4월 말일까지 1차 부스접수 마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총 250개 업체, 800개 부스 모집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업체 현황을 업데이트해 부스 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오는

5월경에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키로 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KISTOCK에 관심을 보인 해외업체들은 약 13개국으로 국제 박람회인 만큼 해외유치에도 노력하기 위해 오는 5월 중국청도축산박람회에 홍보단을 파견할 뿐 아니라, 6월경에는 해외 유명 잡지 기자단을 초청해 저널리스트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 이후 원활한 박람회 진행을 위해 정부 및 각 기관·단체 등에서 협찬 유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채란분과위원회

자조금 거출 독려 당부



본회 회의실에서 지난 5일 채란분과위원회 월례회의가 AI로 5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날 식용란수집판 매업 신설 및 계란 포장 의무화 실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해 AI, ND 혼합 오일백신 국비지원 건의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란선물용 포장지(박스) 케익박스형의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형태의 박스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

안영기 채란분과위원장(본회 부회장)은 산란계자 조금 거출율이 저조함에 따라 자조금 거출율 향상을 위해 독려할 것을 피력하였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제 19대 위원장 선출키로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전차회의록 요약보고와 진정서제출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날 주요 안건인 19대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의 선출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8대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직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날 회의는 전, 17대 종계부화분과위원장으로 지냈던 이언종 사장(신영농장)이 임시위원장으로 맡았다. 19대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직은 단일주천하는 방향으로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고, 선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월말안에 소위원회를 거쳐 선출키로 결정하였다.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면서 임시위원장인 이언종 위원, 감사인 민균홍 감사, 지부장 3인(논산 안태엽지부장, 당진 신현민 지부장, 익산 김석산 지부장), 18대 이사 5인(윤정로, 함경섭, 김상섭, 이봉기, 이상배(배성황 代))으로 임시위원장장을 지명했다.

‘계란 유통단계별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제시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비 체계적인 유통구조



로 인해 계란 생산–소비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란 유통단계별 개선방안’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계란 유통관련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내외 계란유통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에 도출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여 투자비 및 재원조달을 한다는 방안이다. 수정사항 보완 후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준비는 향후 5월 말 있을 예정이다.

2011 양계협회 직원 워크샵



본회는 직원단합을 도모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23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서귀포 성산소재 엘하우스펜션에서 ‘2011 양계협회 직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말 이후 2년반만에 갖은 이번 워크

샵을 통해 협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격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은 제주도지회와의 만남을 통해 지회 현황 및 본회와의 업무교류의 장을 열었다.

박옥룡 도지회장은 “우리 지역이 AI에 취약지구인 만큼 유비무환의 생활화로 양계농가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없도록 방역활동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회 · 지부 소식

전북도지회

정기총회 실시

전북도지회(회장 박옥룡)는 지난 3월 31일 대의원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0년도 사업을 결산했다. 이날은 앞으로 3년간 도지회를 끝고 갈 임원선정 및 2011년도 사업 및 수지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도지회 발전방향을 논의한 결과 분기별 임원단합대회를 각 지부별로 개최하여 양계농가들의 당면현안에 대해 풀어 나아갈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추가 시군지부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당진육계지부

임원 변경사항

당진육계지부는 지난 2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지부장으로 한용현 씨를 선임했다.

한용현 지부장은 전임 이종승지부장을 비롯해 당진육계지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임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 지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지부장 : 한용현

부지부장 : 최준호, 강희석

고문 : 최치재, 이종승

감사 : 호종삼, 김관호

총무 : 손정훈

구독신청

월간양계를 받아보세요

월간양계는 대한양계협회에서 1969년부터 매달 발행하는 회원지로써 사양관리, 전망, 종계검정실적, 양계사료실적, 양계산물수입실적, 해외기술정보, 협회사업 홍보 등 각종 정보를 회원 및 양계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월간양계 증정 대상 : 본회 회원과 일정액 이상의 협찬자

협찬금 : 연 70,000원 이상

담당자 : 홍보부 최인환

2. 광고협찬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매월 1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단, 광고필름구비시 20일까지 가능)

3. 결제계좌

농협중앙회 097-01-000953

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4. 전화번호

070-4263-9735